에메랄드 카보숑

Le Cabochon d’émeraude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30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7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 Cabochon d'émeraude » (1930)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 Cabochon d'émeraude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7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시네요, 친애하는 올가 님. 그분을 마치 아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날 밤, 올가 공주는 살롱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던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 물론 알죠."

"아르센 뤼팽을요?"

"물론이죠."

"말도 안 되네요!"

"저는 적어도 그분과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버넷 사무소를 위해 탐정 놀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짐 버넷과 그의 정보국 직원들이 모두 아르센 뤼팽 그 자체였음이 증명되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훔쳐갔나요?"

"오히려요. 그분은 저에게 도움을 주셨죠."

"정말 대모험이군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극적인 반전 없이, 아마도 반 시간가량 이어진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30분 동안 나는 정말로 특이한 인물을 마주했다고 느꼈다. 그는 행동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묘했다.

그녀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친한 친구들조차도 충분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을까? 그녀의 뜨거운 아름다움, 금발, 그리고 다정한 푸른 눈빛에 이끌린 몇몇 남성들의 열정에 그녀는 굴복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심지어 악담을 퍼붓는 입들은 그녀가 때로는 사랑보다 호기심이 더 큰 기이한 취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어떤 이름도 거명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다. 그녀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그 비밀의 베일을 살짝 들어 올렸다.

"결국, 왜 이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겠어요? 내 이야기에 다른 사람을 섞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은 나를 침묵하게 할 만큼 중대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나는 아주 간략히만 언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당신들이 관심 있는 건 아르센 뤼팽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가진 의미를 당신은 잘 이해하시겠죠. 나는 한 남자에게 강렬하

고 진심 어린 사랑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표현을 쓸 권리가 있어요. 그 남자의 성은 적어도 당신들에게 익숙할 거예요. 막심 드르비놀.”

올가 친구들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막심 드르비놀? 은행가의 아들이요?”

“네.”

“사기꾼 은행가이자, 사기꾼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가 체포된 다음 날 상테 형무소 감방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그 사람이요?”

“네.” 올가 공주가 매우 차분하게 다시 말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뤼노 은행의 고객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큰 피해를 입힌 피해자 중 하나였죠. 아버지가 자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알고 지내던 막시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싶어 했고, 저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안하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그를 만나야 했죠.

솔직히 말해,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단정하고 위엄 있는 태도는 그 호감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행한 정직한 행동은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추문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끝없는 고통과 사적인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자극받곤 했죠."

나는 그를 친구로 맞았다. 곧 그는 사랑에 빠졌고, 나는 그의 사랑이 매일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그의 아버지가 몰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나를 청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고백하지도, 내 감정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답했을까? 나는 내 감정조차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부아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 후 그는 나를 따라 이 방으로 왔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 보였다.

나는 가방과 반지들을 모두 작은 원탁 위에 내려놓고, 그의 요청대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가 좋아하던 러시아 곡들을 연주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는 내 뒤에 서서, 내가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감격하며 경청했다.

연주를 멈추고 일어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가 말을 건넬 것 같았다.

나는 그를 주시하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반지를 다시 주워들고, 무심한 듯 손가락에 끼웠다. 그러자 문득 멈칫했다. 그리고는 놀라기보다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기, 내 에메랄드 반지는 어디로 갔지?"

그가 몸을 떨며 외쳤다.

"당신의 아름다운 에메랄드 말입니까?"

"네, 당신이 너무도 아끼던 그 카보숑이요." 내가 말했다. "물론, 솔직히 말해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점심 식사 때 손가락에 끼고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반지를 끼고 피아노를 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반지들과 함께 저기에 놓아둔 거예요."

"아직 그 자리에 있을 텐데요…"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굳은 자세를 유지한 채, 너무도 당황한 표정이어서 농담조로 말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죠?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딘가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누군가 보면 알 텐데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어쩌면 가구 밑으로 굴러들어갔을지도요."

나는 전자기 벨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가 내 손목을 꽉 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기다려야 해요! 뭘 하려는 거죠?"

"침실 여종불을 부르려고요."

"왜요?"

"반지를 찾으러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는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일그러진 채 내게 말했다.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할 거고, 에메랄드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도 나도 이 방에서 나올 수 없어요."

"찾으려면 찾아야죠. 피아노 뒤를 한번 보세요."

"안 돼요."

"왜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그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내 반지가 떨어진 거죠. 주우면 되는 일이에요. 같이 찾아봅시다."

"제발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요?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그가 갑자기 마음을 정한 듯 말했다. "만약 내가 그 보석을 이 곳이나 다른 곳에서 다시 찾게 된다면, 당신은 제가 애써 찾는 척하며 여기에 숨겨둔 것이라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깜짝 놀라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막심."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나중에요? 나중에라도 당신은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의 속마음을 나는 다 이해했다. 은행가 데르비놀의 아들이라, 남들보다 더 민감하고 겁이 많을 수 있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그 비난의 상처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그 아이는 나와 사이드테이블 사이에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불안해하고 있는 이 순간, 나는 그의 창백하고 당황한 모습에 의아하지 않았는가?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웃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웃지 않는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막심."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양심적 고민이 있는 이상, 나는 그걸 존중해야겠군요. 그러니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몸을 숙여 피아노와 벽 사이, 그리고 책상 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그는 말을 멈췄다.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은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움직여도 될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시오." 그가 외쳤다. 하지만 그는 덧붙이며, 어딘지 아이스런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확신이 설 때만 움직이시오."

나는 그의 걱정을 달래주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정보 업체 '바렛'에 전화를 걸었다. 짐 바렛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즉시 찾아오라고 고집했다. 그는 곧장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제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양쪽 모두, 억누를 수 없는 초조함이 감돌았다.

"제 친구가 Barnett을 추천해 줬어요." 나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섞어 말했다. "이상한 사람이긴 합니다. 낡은 긴 코트에 가발까지 쓴 꼴불견이죠. 하지만 실력은 출중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자기 몫을 떼어 먹는다고 하더군요."

나는 농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막심은 움직이지도,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둠에 잠긴 듯이 굳어 있었다.

그때 현관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거의 동시에 하녀가 문을 두드렸다. 초조해진 나는 직접 문을 열고 말했다.

"들어오세요, Barnett 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들어섰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기다리던 사람과 전혀 다른 남자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새였다. 외모도 젊고 친근감이 갔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내가 그에게 호감을 준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바넷트가 매우 바쁘다기에, 저에게 그분을 대신해 오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 변경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자기소개를 해도 될까요? 에네리스 남작입니다. 탐험가이기도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탐정 놀이를 하는 아마추어 탐정이기도 하지요. 제 친구 바넷

트는 저에게 직관력과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그 재능을 즐기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죠."

그는 너그러운 미소로 그렇게 말했다. 그 미소는 너무도 설득력 있어, 내가 그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위해 일할 탐정이라기보다, 내 편이 되어 줄 한 명의 사교계 남자로 보였다.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습관대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놀라운 실수를 저질렀다. 그에게 담배를 권하며 물었다.

"담배 피우시나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 낯선 이가 도착한 지 단 일분 만에,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 초조함은 가라앉았고, 거실 전체가 평온해 보였다. 다만 드르니놀만이 여전히 찌푸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곧장 그를 소개했다.

"막심 드르니놀 씨."

드네리스 남작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데르니놀'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어떤 기억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단서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생각 연결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나를 향해 물었다.

"부인, 댁에서 무언가 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막심은 화를 참았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아무 중요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죠." 드네리스 남작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풀어야 할 작은 문제 하나일 뿐이고, 당신과 그분은 이미 포기하셨겠죠. 그 물건이 막 사라진 건가요?"

"네."

"좋아요. 문제가 더 쉬워질 테니까.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반지요. 저 테이블 위에 다른 반지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핸드백과 함께 놓아두었던 에메랄드 반지였죠."

"왜 반지를 벗으셨습니까?"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였죠."

"피아노를 치고 계실 때, 드르비뇽 씨는 당신 곁에 계셨습니까?"

"제 뒤에서 서 계셨죠."

"그렇다면, 당신과 테이블 사이에 계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에메랄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당신은 수색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드르비뇽 씨도 마찬가집니다?”

“네.”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색을 막은 이는 드르비뇽 씨였습니까?”

막시므는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저입니다.”

데네리스 남방은 안방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는 탄력 있는 작은 발걸음으로 걸었으며, 그 모습은 무척이나 유연해 보였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다른 반지들도 좀 보여 주시겠어요?”

나는 두 손을 내밀었다. 그가 내 손을 살펴보자마자,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진지한 조사라기보다, 자신을 즐겁게 해 주는 게임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라진 반지는 분명히 큰 가치가 있었겠군요, 맞나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 보석상이 사흘 전까지 이십만 프랑으로 평가했었죠."

"이십만 프랑. 좋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해했다. 그는 내 왼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마치 손금의 선들을 읽어 내려가려는 듯했다.

막심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 인물이 그를 얼마나 분열하게 하는지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몸을 빼고, 그 충격적인 제스처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그 압력은 너무나 부드럽게 느껴졌고, 나는 조금도 저항하지 못했다.

그 남자는 내 손을 입맞춤했다. 나는 그의 권위와 행동 방식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기, 그를 밀어낼 힘이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그가 이미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확신했다. 적어도 사건 자체의 측면에서는 그랬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내게 들려준 두세 가지 에피소드가 우리 사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 에피소드들은 나와 같은 경험과 비슷한 모험들이었다.

그는 가끔씩 맥시므나 나를 향해 빠른 눈치를 보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우리를 직접 묻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 상태와 막시ㅁの 사랑,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씩 파헤쳐 가고 있었다. 나는 몸을 굳혔다. 막시ㅁ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치 편지의 종이를 펼쳐듯, 우리 안에 쌓여 있던 비밀들을 하나둘 꺼내 보였다.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막시ㅁ이 화를 내며 말했다.

"정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소."

"우리가 모인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드네리스 남작이 끊어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수수께끼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옳으려면, 그 작은 사건이 일어난 순간의 여러분의 심정 상태가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선생님!" 막심은 참지 못하고 외쳤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수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구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살피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잃은 보석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엔네리스 남작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형식적인 수사 절차에 압도되어, 물리적 증거에서 진실을 끌어내려 하는 부류에 속하군요. 하지만 진실은 거의 항상 완전히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기술적이거나 경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심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제 증거는 번거로운 조사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충동적인 사람들에게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매우 특별한 심리적 현상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제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뜻입니까?" 막심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신사께선 아닙니다."

"그럼 누구요?"

"부인께서요."

"저요?" 나는 소리치며 물었다.

"당신 말씀이시죠, 마담. 당신처럼 모든 여성이 그러하듯, 감수성이 예민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두고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인격의 절대적 통제력을 유지하거나, 완전한 일체감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요.

인격은 분열되기도 합니다. 운명이 걸린 비극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고, 수다를 떨며, 생각할 때, 우리의 무의식이 본능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그림자 속에서 행동하게 되지요.

그 행동은 종종 비정상적이고, 터무니없으며, 어리석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는 밝고 경박하지 않은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점점 인내심을 잃고 그를 향해 말했다.

"결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그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인, 제가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사소한 예의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얽매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 시간 전, 당신은 드르니놀 씨와 함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드르니놀 씨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당신을 상심시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신이 그 고백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이런 일에 대해 잘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깊은 동요를 불러일으키죠.

따라서 피아노 앞에 앉기 직전, 반지를 벗어던질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과 드르니놀 씨는 모두 앞서 말한 그 특별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당신 쪽이 더 그랬죠.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정말요. 저는 아주 맑은 정신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렇죠. 당신 자신에게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격변이 일어난 순간, 그 정도가 얼마나 가볍든 우리는 절대 완전히 맑은 정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상태였어요. 실수하기 쉽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고, 무의식적인 행동을 저지르기 쉬운 상태였다는 뜻이죠."

"결국 말씀하시려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해, 마담. 당신은 본성적으로나 상황의 논리적으로나 정반대되는 행동을, 원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저질렀습니다."

"진실로 말해서, 드르비놀이라는 남성이 누구든, 그가 당신의 에메랄드를 훔칠 수 있다고는 처음부터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나? 내가 그런 말을 믿었다니? 그런 모욕적인 말을 믿을 리가 없다."

"당연히 믿지 않았죠." 드네리스 남작이 반박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믿는 척하며 움직였던 겁니다. 당신의 시선과 생각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무의식은 당신 반지 중 값어치 없는 것들을 가려냈습니다. 돌이 가짜인 반지들, 흔히 볼 수 있는 보석들처럼요. 하지만 에메랄드 반지는 달랐습니다. 가짜가 아니었고, 가치가 8만 프랑이나 되는 보물 같은 반지였죠.

그 무의식은 당신도 모른 채 그 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른 채, 그 반지를 탁자 위에 눈에 띄게 올려놓은 다른 반지들 사이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치워버린 겁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말도 안 돼!"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알았을 거야."

"증거는 당신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에메랄드가 내 몸에 있는 셈이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에메랄드를 어디에 놨었죠?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 작은 원탁 위에."

"거기 없어요. 분명히 없잖아요!"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기에는 제 가방 하나뿐인데!"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담, 에메랄드는 당신의 가방 속에 있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내 가방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마담, 제가 마술사나 사기꾼처럼 보인다면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고 저를 불렀죠. 그러니 제가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곳 말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물론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 남자가 자신의 환상과 예언이 빗나감으로써 굴욕을 겪었으면 했으니까.

그가 내게 손짓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시에 따랐다.

가방을 들어 올리고 뚜껑을 열었다. 가득 차 있던 잡동사니들을 손으로 더듬으며 열정적으로 찾았다. 에메랄드가 있었다.

나는 멍해졌다. 내 눈이 믿기지 않았다. 손에 쥔 것이 정말 내 에메랄드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맞았다. 오해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는 왜 그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막시므 데르비뇰에게는 왜 그토록 모욕적인 일이 되었을까?

바론 드에네리스는 당황한 내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절제 있게 감정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세련된 사교인의 차분한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말았다. 대신 성공한 프로페셔널이 대성공을 거둔 뒤 보이는 열광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자, 보셨죠?" 그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제하지 않을 때 본능이 저지르는 작은 장난입니다. 이 사나운 작은 악마는 가장 끔찍한 농담을 실행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의식이 닿지 않는 어두운 영역에

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가방을 조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신은 온갖 곳을 뒤지고, 심지어 드르비노 씨까지 포함해 온 세상을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금 보물을 맡겼던, 이 무형이고 무해한 물건을 의심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부인, 이 사실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아마도 조금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겠죠? 우리 내면의 보이지 않는 깊이에 비추는 빛이랄까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품위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위 권력의 신비로운 명령에 복종하곤 합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친구가 있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을 모욕하기도 하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아이러니한 유쾌함으로 그 짧은 연설을 던졌다. 나는 바롱 드 에네리가 사라지고, 진짜 얼굴과 사소한 습관을 가진 Barnett 사의 직원 한 명이 가면을 벗고, 남이 시킨 듯한 동작 하나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막심은 주먹을 쥐고 한 발짝 나섰다. 상대는 몸을 곧추세우는 동작을 취해, 키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와, 바롱 드에네리일 때는 하지 않던 행동을 보였다. 내 손을 입에 대고 입맞춤한 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끝으로 그는 모자를 집어 들고, 깃털 모자를 쓴 듯 과장되지만 넓은 동작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한 듯이 걸음을 떼며,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아주 멋진 일거리였군요. 저는 이런 소소한 사건을 다루는 게 정말 좋아요. 제 특기죠. 마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올가 공주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냈다. 그녀는 게으른 듯이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친구들에게 미소 지었다. 친구들은 즉각 외쳤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반지 이야기는 끝났잖아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도 다 끝났어요."

"제발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올가, 당신도 고백할 기분이니까 끝까지 말해 봐요."

"세상에, 너희는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 어쨌든, 뭘 알고 싶은 거야?"

"뭐, 우선은 막심 데르비놀과 그의 열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요."

"음, 큰일은 아니었지. 하지만 그건 결국 내가 그에게 의심을 품게 만든 게 원인이었어. 의도했든 아니든, 에메랄드를 숨긴 행동이 그를 상처 입혔고, 그는 이미 불신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지. 게다가 그가 저지른 실수는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떨어뜨렸어."

"바론 드 앵네리스를 화나게 만든 그는, Barnett 사로 수표 한 장을 보내버린 거야. 액수는 만 프랑. 그런데 그 수표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지. 정말 멋진 꽃 바구니에 싸여 왔어. 봉투에는 나를 향한 존중 어린 글귀 몇 줄이 적혀 있었고, 서명은…"

"바론 드 앵네리스?"

"짐 Barnett?"

"그래서?"

"아르센 뤼팽!"

그녀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친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누구든 그렇게 서명할 수 있는 일이지."

"물론이지."

"그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

올가 공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친구가 말을 이었다.

"올가, 막심 드르비노가 더 이상 당신을 매료시키지 못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사건 내내 그는 신비로운 인물이었죠. 그 남자는 당신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데 천부적인 재주가 있었고,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법을 잘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올가. 그의 행동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를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들지 않았나요?"

올가 공주는 이번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와 사귄 지 오래되어 거리낌 없이 말하고 가끔 장난을 치던 친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요약하자면, 올가, 당신은 반지를 그대로 간직했고 드르니노는 돈을 그대로 가졌네. 바넷의 원칙과는 달리, 당신과 드르니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지. 바넷은 항상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보상을 받았다고 했잖아.

사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에메랄드를 훔칠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마도 반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나네. 한 번은 바넷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채무자의 아내를 납치해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는 일화가 있거든. 정말 멋진 보상 방식이야, 올가. 당신이 보여준 그의 모습과 성격에 딱 어울리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 올가?"

올가는 침묵을 지켰다. 어깨를 드러낸 채 안락의자에 기대어 누운 그녀는, 아름다운 몸을 편 채 시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빛나는 에메랄드 카보숑이 빛나고 있었다.